

Session 9 The Most Famous Apostolic Prayer: The Lord's Prayer
가장 유명한 사도의 기도: 주 기도문

I. THE MODEL PRAYER (MT. 6:9-13)

모델이 되는 기도 (마 6:9-13)

- A. What a gift and privilege it is to learn about prayer from the One who is the greatest teacher and who had the greatest prayer life!

가장 위대한 교사이며 최고의 기도의 삶을 가졌던 한 분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얼마 큰 선물이며 특권인가!

- B. Jesus gave us a model of prayer (Mt. 6:9-13) based on what God is like and on the nature of the kingdom. It covers all the foundational basics that are expanded upon throughout Scripture. Jesus told us the things that we must know and keep central in our quest to grow strong in prayer.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기도를 주셨으며 (마 6:9-13),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기반을 둔 기도이다. 이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아우르는 기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셨다.

⁹*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⁹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C. Jesus pointed out six requests that we should pray. The first three focus on God's glory (His name, kingdom, and will). The second three focus on man's needs (physical, relational, and spiritual).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여섯 가지 간구를 알려주셨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분의 이름, 나라, 그리고 뜻), 그 다음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신적, 관계적, 영적인 부분).

II.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A. Jesus' teaching on prayer starts with a strong focus on who God is to us—our Father in heaven. Foundational to a strong prayer life is a right view of God as our heavenly Father. A. W. Tozer declared that a low view of God has been the biggest problem in the Church in every generation.

As we pray, we must intentionally take time to recall who He is according to His Word.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강한 초점을 맞추며 시작한다. 강건한 기도의 삶의 기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한 올바른 관점이다. A. W. 토저는 하나님에 대한 낮은 관점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

⁹*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⁹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B. In the time of Jesus, the Jewish people saw God as a transcendent creator and King. They trembled before His great power. Jesus taught them that God their creator was also their Father. “In heaven” points to the Father’s powerful transcendence. Jesus combined these two ideas about God—He is both powerful and personal. He associated God’s fatherly love with His heavenly power, His transcendence with His tenderness, and His exalted place in glory with bowing down so low.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창조자이며 왕으로 보았으며,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 떨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은 아버지의 강력한 초월성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하늘의 능력과 연관시키셨고, 그분의 초월성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연결시키셨으며,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을 자신을 너무도 겸손히 낮추시는 분과 연결하셨다.

- C. God is a Father who longs for a relationship of deep partnership with us in which He trains (disciplines), provides for, protects, and directs us with tenderness. God is deeply personal, yet terrifying in His majesty. We are to draw near to His tender heart with confidence, love, and humility. He expresses the fullness of the glory of what fatherhood means. Some neglect this revelation and depersonalize God, presenting Him as majestic, but distant, cool, and even harsh.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협력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부드러움으로 훈련하시며,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깊이 다가오는 분인 동시에, 두려울 정도로 크신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이다. 우리는 확신과 사랑,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지를 영광의 충만함으로 드러내신다. 어떤 이들은 이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며, 그분을 위엄에 찬 분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우며, 때론 가혹한 분으로 표현한다.

- D. We are awed by our Father in heaven, who longs for relationship with people like us. We will know the truth about Him as our Father much more as we see glimpses of His transcendence.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이와와 관계를 갈망하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며 경외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초월성을 엿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의 진리를 더욱 알게 될 것이다.

- E. C. S. Lewis wrote of God as being “*beyond personality.*”

C. 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을 넘어서는” 분으로 묘사했다.

- F. **Our:** He is not only *my* Father, He is *our* Father. Our prayers requests are tempered with the reality of who we are to God *as one family.* They also become inclusive as we are to pray for the whole family of believers and not for ourselves only.

우리: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다듬어지게 된다. 우리 기도들은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로 폭이 넓어지게 된다.

- G. Revelation 4 is one of the great passages on the Father's beauty and throne. I see four categories, each having three themes. These twelve details have many implications.
1. The beauty of *God's person*: how God looks, feels, and acts (4:3)
 2. The beauty of *God's people*: the Church enthroned, robed, and crowned (4:4)
 3. The beauty of *God's power*: manifested in the lightning, thunder, and voices (4:5a)
 4. The beauty of *God's presence*: His fire on lamps, seraphim, and the sea (4:5b-7; 15:2)

계시록 4 장은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보좌에 대한 위대한 성경 구절 중의 하나이다. 나는 이 부분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열 두 가지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1.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며, 느껴지며, 행하시는지 (4:3)
2.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보좌에 앉았으며,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교회 (4:4)
3.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 번개와 뇌성과 소리에서 드러남 (4:5a)
4.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등불의 불, 스랍, 유리 바다 (4:5b-7; 15:2)

²A throne set in heaven...³He who sat ther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in appearance; and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like an emerald.⁴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I saw twenty-four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obes; and they had crowns...⁵From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thunderings, and voices. Seven lamps of fire were burning before the throne...⁶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crystal...around the throne, were four living creatures...⁸they do not rest day or night, saying: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Rev. 4:2-8)

²...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³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⁴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⁵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일곱이 있으니 ...⁶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⁸ ...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 4:2-8)

- H. Jesus set the context of intimacy with God within His sovereignty and majesty. Some only see Him as a tender Father without seeing His heavenly glory. Others see His heavenly glory without seeing His nature as a Father with deep love. Some only see Him as a Father who is personal and tender, without trembling before His transcendence. They portray God as a familiar and fun-loving buddy. These views are based on bad, shallow theology and very little personal experience of God.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그림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치셨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단지 부드러운 아버지로만 보며, 그분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그분이 깊은 사랑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단지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운 아버지로만 보며, 그분의 초월성 앞에 두려워 떠는 부분은 간과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와 친밀하며 재미있는 친구로 그린다.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고 얕은 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극히 작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III. PRAYING FOR GOD'S GLORY (MT. 6:9-10): THREE REQUEST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마 6:9-10): 세 가지 간구

- A. **Petition #1 Praying for God's name to be hallowed:** This petition is that God's majestic name be hallowed or acknowledged as holy (transcendent and pure) on earth just as it is honored in heaven. God's name refers to His person, character, and authority.

간구 #1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거룩한 것으로 (초월적이며 정결함) 여겨질 것에 대한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성품, 권세를 말한다.

⁹*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⁹...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B. We ask God to break in with power to cause more people to acknowledge the truth about Him.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진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 C. Many take God's name in vain. Some use God's names in a joking way or in expressions of contempt and anger.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농담으로 사용하거나, 멸시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1. We pray that the Father receive the highest place in our life, heart, and worship.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과 마음과 예배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해야 한다.

2. We revere God's name by not asking for anything against His will or that would defame His glorious name. The very thought of His name stirs awe and holy fear in all who understand.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나, 그분의 영광스런 이름을 훼손하는 것을 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한 묵상은, 이를 이해하는 모든 이들 안에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3. God-centered Christianity prays *hallowed be Your name*, or "Help us to honor Your name." We pray, "Lord, work in me and others, so that we acknowledge Your greatness."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는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와 다른 이들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 D. **Petition #2 Praying for the kingdom to come:** This petition asks for an increase of the kingdom, which is the place where God's Word is obeyed, His will is done, and His power expressed. The kingdom is manifested when the sick are healed and demons are cast out (Mt. 11:5; 12:28).

간구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할 것에 대한 기도이며, 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드러지며, 그분의 뜻이 행해지며,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 (마 11:5; 12:28).

¹⁰*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¹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1. The kingdom of God is manifested in part in this age and in fullness when Jesus returns to earth. The kingdom is “already, but not yet”—it is already here, but not yet fully here (Mt. 3:1-2; 4:17, 23; 6:10, 33; 10:7; 12:28; 13:11; 16:18-19; 19:12; Mk. 4:11, 26; 9:1; Lk. 16:16; 17:20-21; 18:16, 29-30; Acts 14:22; 19:8; 20:25; 28:23, 30-31; Rom. 14:17; 1 Cor. 4:20).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즉,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아직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 (마 3:1-2; 4:17, 23; 6:10, 33; 10:7; 12:28; 13:11; 16:18-19; 19:12; 막 4:11, 26; 9:1; 눅 16:16; 17:20-21; 18:16, 29-30; 행 14:22; 19:8; 20:25; 28:23, 30-31; 롬 14:17; 고전 4:20).

2. This is not a prayer for the Father's universal, heavenly sovereignty to be exercised, for it is always in force, even if men do not accept it. This is a prayer for God's saving power to be greatly increased or openly manifested on earth so that even unbelievers can see it.

이는 아버지의 전 우주적인, 하늘의 주권이 드러날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닌데, 인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항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크게 증가되거나 명백하게 부어질 것에 대한 기도이다.

3. We pray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kingdom to increase openly on the earth. The Lord gives more if we ask for more—the act of asking develops relationship, and this is what He wants.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행위는 관계를 발전시키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4. Seek to know what God is doing in your generation, and then throw yourself fully into it.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라. 그리고 이것에 당신의 전부를 던지라.

5. It includes being kingdom-minded in our lifestyle and in our attitudes towards others. Therefore we are to work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instead of being focused with a territorial attitude on our own sphere of authority and influence.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

- E. **Petition #3 Praying for God's will to be done:** This request includes our personal obedience in the context of His kingdom purposes. His will consists of His commands and our ministry assignment.

간구 #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 이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명령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으로 구성된다.

¹⁰**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¹⁰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IV. PRAYING FOR OUR PERSONAL NEEDS (MT. 6:11-13): THREE REQUESTS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마 6:11-13): 세 가지 간구

- A. The next three requests are for our needs—*physical* (daily bread), *relational* (forgiveness), and *spiritual* (deliverance from evil). Jesus commanded us to bring our personal requests to God in prayer. These prayers express our dependence on God in every area of our life. Some conclude that prayer for such things are “selfish,” so they neglect to make personal petitions.

그 다음 세 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부분이다. 이는 우리의 **육신적** (일용할 양식), **관계적** (용서함), 그리고 **영적인** (악으로부터 구원) 필요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다. 이 기도들은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간구를 하지 않는다.

- B. **Petition #4 Praying for our daily provision:** This request is for our *daily* provision, protection, and direction (spiritual and physical). *Bread* refers here to our daily natural needs.

간구 #4 매일의 공급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우리를 **매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인도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이다. 여기서 **양식**(떡, 빵)은 우리의 매일의 자연적인 필요 들을 말한다.

¹¹***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Mt. 6:11)***

¹¹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시옵고 (마 6:11)

1. We do not pray to inform God of our needs (Mt. 6:7-8), but to enhance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to express gratitude (Ps. 50:15).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마 6:7-8). 이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개발시켜 나가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시 50:15).

2. Asking God for our needs does not free us from the responsibility to work (2 Thes. 3:10). He meets our needs in part by giving us the ability and the opportunity to earn a living.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책임이 없어지는 않는다 (살후 3:10). 그분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능력과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부분적으로 채우신다.

- C. **Petition #5 Praying for forgiveness:** This petition concerns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people. The proof that we have been freely forgiven is that we gladly forgive others. The man who knows he has been forgiven is compelled to forgive others.

간구 #5 죄사함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이다. 우리가 값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용서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사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밖에 없다.

¹²***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Mt. 6:12)***

¹²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 6:12)

- D. Jesus did not say, “Forgive us our debts *because* we forgave our debtors.” We must compare Scripture with Scripture to see the truth more clearly. Believers are freely justified by faith, so we ask for forgiveness to restore our fellowship with God (1 Jn. 1:9), not to be saved from hell.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값을 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봐야 한다.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요일 1:9) 우리의 죄를 사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⁹*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to cleanse us from unrighteousness. (1 Jn. 1:9)*

⁹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¹⁰*He who is bathed needs only to wash his feet, but is completely clean; and you are clean. (Jn. 13:10)*

¹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 (요 13:10)

- E. **Petition #6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evil:** The sixth petition has caused much discussion. Since God never tempts anyone with evil (Jas. 1:13), why would we ask God to lead us not into temptation? We pray that God leads us to escape from tempting situations.

간구 #6 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도: 여섯 번째 간구는 많은 논의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약 1:13), 왜 우리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유혹)의 상황에서 나오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¹³*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Mt. 6:13, NIV, RSV)*

¹³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마 6:13)

- F. Many agree that Jesus was using a figure of speech to express the same thing in two different ways—leading away from temptation and being delivered from, or escaping, evil. This is clear when we read both parts of the one request—to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to *deliver us from evil*. The second half of the request defines positively what the first half expresses negatively.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여기서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동의한다. 이 간구는 우리가 두 부분을 모두 읽을 때 명확해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도록). 이 간구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G. Jesus urged the apostles to pray that they enter *not into temptation* (Mt. 26:41; Lk. 22:40). To enter temptation speaks of something far more intense than the general temptations we all face. It is a specific storm attacking us, a time when three components come together—when *demonic activity* is heightened, our *lusts are aroused*, and *circumstances are optimum* for sin.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26:41; 눅 22:40).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겪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훨씬 더 극심한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특정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를 말한다. 악한 영의 활동이 증가하고, 우리의 정욕이 일어나며, 환경이 죄를 짓기에 최적인 상황이 되는 것.

⁴¹*Watch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41)*

⁴¹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³¹ *Satan has asked for you [Peter],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³²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and when you have returned to Me... (Lk. 22:31-32)*

³¹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³²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 H. There are “opportune” times when demonically-energized temptations hit us like a storm. Praying before “the storm” of temptation hits expresses humility that depends on God’s strength and acknowledges our weakness. These “pre-temptation prayers” for help are a pre-emptive strike against Satan’s attack against us. We can reduce the temptation by praying this way.

우리 삶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험이 폭풍우와 같이 우리를 치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으로 이 시험의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 “시험 전의 기도”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선제 공격과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로 시험을 줄일 수 있다.

¹³ *The devil ended every temptation...he departed from Him until an opportune time. (Lk. 4:13)*

¹³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쉬운성경: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떠나니라 (눅 4:13)

³⁴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your hearts be weighed down with carousing,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come on you unexpectedly. ³⁵For it will come as a snare 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³⁶Watch and pray always that you may be 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wi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k. 21:34-36)*

³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³⁵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³⁶ 이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 I. David prayed for deliverance from sinful situations even before they occurred (Ps. 19:12-13).

다윗은 죄를 지을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시 19:12-13).

¹² *Cleanse me from secret [unperceived] faults. ¹³Keep back your servant from presumptuous sins; let them not have dominion over me. Then I shall be blameless... (Ps. 19:12-13)*

¹² ... 나를 숨은 [인식하지 못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¹³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 19:12-13)